

최상의 감동에 대한 설화문학의 표현적 고찰

『삼국유사』 소재 설화를 중심으로

A Study of Expression Method of Narrative Literature about Best Impression

저자 (Authors)	김영동 Kim Yong-dong
출처 (Source)	신라문화 34 , 2009.8, 313-340(28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34 , 2009.8, 313-340(28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246697
APA Style	김영동 (2009). 최상의 감동에 대한 설화문학의 표현적 고찰. 신라문화, 34, 313-34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4 15:4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최상의 감동에 대한 설화문학의 표현적 고찰

- 『삼국유사』 소재 설화를 중심으로 -

김 영 동*

<目 次>	
I. 緒 言	3. 廣德·嚴莊
II. 佛敎의 世界觀	IV. 경천동지의 자질과 재능
1. 輪回說	1. 蛇福不言
2. 宇宙論	2. 水路夫人
III. 부처 變身	3. 良志使錫
1. 郁面婢念佛西昇	4. 月明師 兜率歌
2.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V. 結 語

[국문초록] 감동에 대한 설화문학의 표현법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불교의 윤회설과 우주론을 약술하고, 부처 변신과 경천동지의 자질과 재능에 초점을 맞추어 『삼국유사』에 수록된 몇 가지 설화를 분석하였다.

붓다는 인생의 ‘苦’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無我’이론을 전개했고, 의식을 만드는 色[육체]에 대한 사색과 우주에 대한 탐색을 거듭했다. 오운, 오취, 12연기, 삼계오도, 사성제, 팔정도 등이 주요한 결과물이다.

부처 변신의 측면에서는 「郁面婢念佛西昇」,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廣德·嚴莊」, 경천동지의 자질과 재능에서는 「蛇福不言」, 「水路夫人」, 「良志使錫」, 「月明師 兜率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부처 변신은 물론, 절에 가 염불하기 위해 방아찝기를 서두르느라 손바닥을 뚫고 그 구멍에 노끈을 꿰어 방아공이 쪽 머리 부분에 대달아 손바닥을 당기며 방아를 찝었다는 용맹정진의 구체적 모습, 絶代佳人인 수로부인이 바다의 해룡에게 피랍되자 그녀를 되찾아오기 위한 강릉주민과 용궁과의 대결, 양지의 신통력을 표현하기 위해 설정한 자동지팡이 개발, 월명사의 재능을 표현하기 위해 달이 운행을 정지했다는 표현 등 최상의 감동에 대한 표현법은 불교의 세계관에서 가능한 열망과 환상에 대한 원초적 상상력의 발동임을 확인하였다.

*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교수

[영문초록] In order to investigate about best the expressive method of narrative literature about best impression first summarizes a Buddhism metempsychosis opinion and a cosmology, analyzed a few thing narrative in Buddha transformation and temperament and talent of astonishment. With subject matter of impression the fact that researches a expressive method is subject of dissertation.

From side of Buddha transformation, I selected 'Female servant Uk-myeon recite Buddha and flew to the western sky(郁面婢念佛西昇),' 'South mt.Bae-kwol's two saint, Nohil-budeuk & Daldal-bakbak'(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Gwang-deok & Eom-jang(廣德·嚴莊).' And from temperament and talent of astonishment, I selected 'Sa-bok don't tell(蛇福不言),' 'Madam Su-ro(水路夫人),' 'Ryang-ji operate a automatic stick with the bells(良志使錫),' 'Buddhist monk Wol-myeong's Dosolga(月明師 兜率歌).' And I analysed these works.

The Buddha transformation is a marvel, and also the expressions of the lower part is very wonderful.

Without the Buddha transformation, the Buddhist monk Sa-bok(蛇福) flew to the western sky at once.

The speaker in order to express the absolutely beautiful woman of Madam Su-ro(水路) gives a super power in the old person and the Dragon king snatched her.

In order to express the super power of the Buddhist monk Rjang-ji(良志), they devised the automatic stick.

The Buddhist monk Wol-mung(月明) threw away Chinese writing and 'dhāraṇī(陀羅尼)' which used until that time, and he wrote and sang an incantation and a funeral song for the younger sister who dies with Korean language. If he swelled a pipe, the moon stood still an operation.

[주제어] 부처 변신(Buddha transformation), 용맹정진(valor devotion), 절대가인(absolutely beautiful person), 주석 방울이 달린 자동지팡이(automatic stick with the bells), 달의 운행정지(stop operation of the moon)

I. 緒 言

수년간 한문으로 기록된 『삼국유사』 所載의 설화를 강독하면서 필자는 감동의 소재는 물론 감동의 표현방법에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설화는 문학이다. 문학은 말이든 글이든 언어를 매개체로 한 표현을 전제로 한다.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독자를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작가의 역량 차이에서 발생한다. 작가의 역량을 세분하면 결국 글의 구성과 표현 방법, 표현이

확보한 참신성과 독창성, 표현에 동원된 어휘의 질량 등을 들 수 있는데, 작품의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 작품의 품질을 결정한다.

그리고 문학의 목적은 감동의 전달에 있다.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감동의 소재와 표현방법을 고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제이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일차적으로 『삼국유사』에 수록된 작품에 한정하였다.

『삼국유사』는 5卷 9編, 138條로 구성되었으나 제1편이 ‘왕력’이므로 유사의 설화는 8편이고 일연의 내용분류와 작품의 수를 적시하면 아래와 같다.

[1. 王曆]

2. 紀異(59조), 3. 興法(6조), 4. 塔像(31조), 5. 義解(4조),
6. 神呪(3조), 7. 感通(10조), 8. 避隱(10조), 9. 孝善(5조).

총 138조.

총 138조 가운데 59조가 紀異편에 해당하는데 유사한 성격의 탐상 31조까지 더하면 작품수가 무려 90편에 달한다. 그리고 보면 내용 분류만 화려했지 그 실체는 기이편에 집중되었다 할 수 있고, 몇 조항을 제외하면 불교설화 아닌 게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삼국유사』¹⁾는 『삼국사기』를 보완한다는 취지와 제목만 거창했지 사실은 명실상부한 불교설화의 집대성에 머문다.

일연은 설화 기술에 승전의 체제를 따라 스님이 주인공인 설화에는 대체적으로 철언절구의 찬으로 작품을 마무리했다. ‘유사’에 수록된 찬은 모두 일연의 작품이다. 이점을 굳이 지적한 것은 ‘유사’ 소재의 작품을 읽을 때에 찬이 붙은 작품에 주목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논평을 덧붙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유사’가 제목은 ‘遺事’이지만 이는 ‘유사’가 역사서임을 자부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객관적 기술과 주관적 서술을 구분하는 표시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유사’란 최남선의 지적대로 『삼국사기』에서 빠뜨린 사실들이란 의미가 된다.

유학적 세계관을 지닌 김부식은 초현실적 비현실적 사실을 가능한 한 자기 사서에 수록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교적 세계관을 지닌 일연은 신라 중심이긴 하지만 설화의 현장을 찾아가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그 설화들을 철저하게 확인 검증하였다. 그 설화들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한 그 설화들이 지닌 메시지의 본질에 다

1) 이하에서는 ‘유사’로 약칭한다.

가졌을 것이다. 그 힘은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에게 무한한 꿈을 심어주는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소재에 따라 이들 선정된 작품군을 부처 변신, 경천동지의 자질과 재능으로 나누고 선정된 각 작품의 ‘유사’의 내용분류와 구성내용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a. 부처 변신

- ◇ 郁面婢念佛西昇[感通 제7] - 논평, 찬
- ◇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塔像 제4] - 논평, 찬
- ◇ 廣德·嚴莊[感通 제7] - 願往生歌, 논평, 찬

b. 경천동지의 자질과 재능

- ◇ 蛇福不言[義解 제5] - 계송, 찬
- ◇ 水路夫人[紀異 제2] - 헌화가, 해가
- ◇ 良志使錫[義解 제5] - 風謠, 논평, 찬
- ◇ 月明師 兜率歌[感通 제7] - 도솔가, [解詩] 제망매가, 찬

공통점을 추출하기 위해 이를 도표로 정리해 보면 <도표 1>과 같다.

<도표 1> (해당사항이 있으면 ○로 표시함)

인물	향가	한시	논평	찬	내용분류
郁面婢			○	○	感通 제7
夫得, 朴朴			○	○	塔像 제4
廣德·嚴莊	願往生歌		○	○	感通 제7
蛇福		계송		○	義解 제5
水路夫人	헌화가	해가			紀異 제2
良志	風謠		○	○	義解 제5
月明師	兜率歌 제망매가	도솔가解詩		○	感通 제7

이들 작품들은 대체로 설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작품구성에 향가나 칠언절구의 한시를 이용하고 논평이나 찬을 덧붙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품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최상의 감동에 대한 설화문학의 표현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II. 불교적 세계관

설화이든 소설이든 서사문학은 화자와 작가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한 사실들을 재료로 하여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이 재료들을 재구성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구성의 행위도 작가의 상상력의 소산이지만 더 큰 상상력의 발현은 시간과 공간 개념의 확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작가는 현실세계에 대한 명징한 해석을 추구하고 확장시킬 수 있다.

‘立身揚名 以顯父母’를 드러내 놓고 삶의 목표로 내세울 만큼 현실세계를 중시하는 유교의 세계관에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재료는 꿈에 한정된다. 김종직이 세종의 왕위찬탈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은 『조의제문』도 꿈속에 나타난, “나는 楚나라 懷王 孫心인데, 西楚王에게 살해 되어 빈강(江)에 잠겼다.”²⁾는 말을 빙자하여 起筆하였다. 『남가태수전』, 『이공좌전』 등의 꿈을 소재로 한 설화가 유가들과 충돌하지 않은 것은 꿈속에서 현실세계의 영화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교의 세계관은 그 자체가 삶의 해석과 공간의 상상력에서 듣도 보도 못한 별난 것들이 다 갖춰진 거대한 요지경세상이고 세상에 없는 것들이 부지기수인 박물관이다. 인도인들의 상상력은 가시적 현실의 벽을 넘어 삼십삼천, 삼천대천세계라는 무한세계에 도전하였다. 윤회설과 우주론을 중심으로 불교의 세계관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1. 윤회설

붓다는 인간 해석을 ‘苦’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色[육신]에 바탕한 ‘我’ 때문인 것으로 규명하였다. 붓다의 설명에 따르면, ‘我’가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욕망의 원인이 되고 ‘苦’의 원인이 된다. 이 ‘我’를 제거하기 위해서 붓다는 힌두이즘에 전해오는 연기설과 윤회설을 독자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설교하였다. 그런데 ‘我’가 없다면 善業의 과를 받을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수수께끼는 후세 사람들

2) 『연산군일기』 권30, 4년 7월 17일(신해). 丁丑十月日, 余自密城道京山, 宿踏溪驛, 夢有神披七章之服, 頽然而來, 自言: “楚懷王孫心爲西楚霸王所弑, 沈之 郴江.” 因忽不見. ‘정축 10월 어느 날에 나는 密城으로부터 京山으로 향하여 踏溪驛에서 자는데, 꿈에 神이 七章의 의복을 입고 현칠한 모양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楚나라 懷王 孫心인데, 서초 패왕에게 살해되어 빈강에 잠겼다.”하고 문득 보이지 아니하였다.

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한다.³⁾

세간에서는 육도윤회를 말하지만 경전에서는 “3계 중에는 지옥 등의 5趣가 있다고 설한다. 즉 지옥 등을 자신의 명칭대로 설한 것으로, 이를테면 앞에서 설한 지옥·傍生·餓鬼, 그리고 인간과 天, 이것을 5취라고 이른다.”⁴⁾고 적고, “여기에 阿修羅를 더한 6취설이 일반에 알려져 있지만, 이는 犢子部의 주장이고, 유부나 상좌부의 정설은 5취설이다. 그리고 대승경전에서도 대개 5취설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⁵⁾고 주석하였다. 위의 ‘방생’은 흔히 畜生으로 말한다.

독자가 경전을 통해서 윤회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고 사전의 설명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장황하지만 필자도 공부삼아 윤회진이 정리한 三界五途를 재정리해 본다.⁶⁾

[三界] 欲界, 色界, 無色界

欲界는 지옥, 아귀, 축생, 인간, 그리고 저급한 神들이 사는 세계다. 여기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욕망의 생활을 하고 있다. “(욕계는) 도덕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상벌이 있는 곳이다. 또한 지식과 지식의 대상이 있는 곳이고, 업과 업을 짓는 자가 있는 곳이고 나쁜 길[惡途]과 좋은 길[善途]이 있는 곳이다.”

色界는 더 이상 욕망을 모르고, 정신적 즐거움만 가지고 있는 신들이 사는 세계다. 여기에 사는 존재들의 육체는 에테르로 되어 있다. 이 세계는 四禪에 해당되는 4층으로 되어 있고, 각층은 몇 개씩의 부속층을 가진다.

無色界는 이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물질적인 공간이나 조건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층이 없고 비물질적인 四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색계는 육체도 없고 욕망도 없는 순수한 정신적인 존재들이 산다.

[五途] 地獄途, 餓鬼途, 畜生途, 人間途, 天途[天上途]⁷⁾

地獄途 : 장아함 19권의 지옥품에 의하면, 지옥도에는 8개의 지옥이 있고, 각 지

3) 윤회진, 『무아윤회문제의 연구』, 민족사, 1992, pp. 101~112.

4) 존자 세친, 『아비달마구사론』, 현장 한역, 권오민 국역, 동국대 역경원, p. 373.

5) 동계서.

6) 윤회진, 전계서, pp. 98~99.

7) 윤회진은 天途란 용어를 썼으나 필자는 전달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天上途’를 쓰도록 하겠다. ‘途’도 같은 뜻의 ‘道’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 글에서의 ‘途’를 그대로 사용한다. 설명문이므로 의미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장을 몇 군데 고쳤다.

옥마다 다시 16개의 소지옥을 가진다. 지옥들은 세계와 세계 사이의 地下에 위치한다. 지옥에 태어난 존재들은 그들의 惡業의 결과가 다할 때까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고통을 받는다.

餓鬼途 : 아귀들은 “굶주린 존재들이다. 바늘구멍만한 입을 가지고서 항상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받는다. 아귀들은 지상이나 세계와 세계 사이에 산다.

畜生途 : 이 세계에는 모든 종류의 벌레들, 물고기, 새, 짐승, 그리고 용 같은 존재들과 물이나 삼림 속에 저급한 신들이 산다.

人間途 : 인간들은 중간의 장소를 차지한다. 아래로는 축생과 아귀와 지옥의 세계가 있고, 위로는 신들의 세계가 있다. 인간도에 태어나는 것은 큰 특전이다. 인간도에는 고풍도 있지만, “구원[해탈]에 필요한 조건이 되는 수행할 수 있는 세계”는 이곳뿐이다. 신들은 인간보다 좋은 조건 아래 살지만 그들이 해탈하기 위해서는 인간도에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붓다가 머무는 곳은 오직 이 인간도뿐이다. 그리고 존재들이 업을 짓는 것도 이 세계뿐이니 다른 途에서는 업을 소비할 뿐이다.

天上途 : 신들의 활동 영역과 머무는 장소는 다양하고 그 수가 많다. 그들의 거주지는 육체의 일부에서부터 모든 색계와 무색계에 미친다. 장아함 20권 제4의 阿修倫品에 의하면, 천상도는 육계에 8天, 색계에 22天, 그리고 무색계에 4天 등 모두 34天이다.⁸⁾

그런데 이 천상도의 신들은 그들이 전생에 지은 선업에 의해서 장수와 지복을 누리지만 그 업이 다하면 그들은 천상도를 떠나 다른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 正覺을 얻기까지 유행물의 윤회는 멈추지 않는다. 위의 세 가지 세계는 惡途라 하고, 아래의 인간도와 천상도는 善途라 한다.

2. 우주론

불교의 우주론이란 위에서 약술한, 欲界, 色界, 無色界의 三界와 地獄途, 餓鬼途, 畜生途, 人間途, 天上途의 五途를 포함하여 風輪으로부터 33天에 이르는 방대한 공간에 대한 설명을 내포한다. 소승불교 경전인 阿毘達磨俱舍論 제8권 제3편 世間

8) 일반적으로는 33天을 말한다. 김동화의 『불교학개론』(보림각, 1984, p. 129)에 의하면 이 세계는 거대한 수미산을 중심으로 아래로 지옥으로부터 위로 33천에 이르기까지 鐵圍山을 외곽으로 하고 그 중간에 九山, 八海, 人四洲, 日月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품의 ‘I. 유정세간과 器世間’과 제11권의 ‘V. 器世間の 구조 및 유정의 크기와 수명’에서 붓다의 우주론에 대해 상론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기 위해 우주 의 토대에 대한 설명을 적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아래에서 허공에 의지하여 風輪(Vayuma ala)이 생겨나니, 그 너비 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두께는 16억 踰繕那이다.⁹⁾

또한 온갖 유정들의 업의 증상력은 큰 구름과 비를 일으켜 수레바퀴 만한 물방 울을 풍륜 위에 뿌리고 쌓아 水輪(Jalama ala)을 이루게 된다.¹⁰⁾

다시 유정의 업력이 별도의 다른 바람을 招感하여 일으키고, 이것이 수륜을 후려치면 그 상부는 응결하여 金輪(Kancanama ala)이 되는데, 마치 잘 익은 것 [熟乳]을 가만히 놓아두면 위의 부분은 응고하여 막을 이루게 되는 것과도 같 다.¹¹⁾

이 세계의 토대는 무한한 높이의 풍륜이고 그 위에 수륜과 금륜이 차례로 층을 이룬다는 것이다.

금륜 위에는 아홉의 큰 산이 있는데, 妙高山王이 그 중앙에 처해 있고, 나머 지 여덟 산은 묘고산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이 여덟 산 가운데 앞의 일곱 산을 丙山이라고 이름한다. 즉 이 일곱 번째 산 밖에는 大洲 등이 있고, 그 밖에는 다시 칠륜위산이 있어 마치 바퀴의 형태로 하나의 세계(즉 4대주)를 에 워싸고 있는 것이다. ¹²⁾

위 기술은 九山과 세계의 중심산인 須彌山에 대한 언급인데 이 경전에서는 묘고 산으로 표현하였고, 번역자는 “묘고산, 즉 蘇迷盧 혹은 須彌山(Sumeru)는 산 중에 가 장 큰 것이기 때문에 산 중의 왕 즉 산왕”¹³⁾이라고 주석하였다.

묘고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최후의 칠륜위산에 이르기까지 각 산들 사이에는

9) 『아비달마구사론』, p. 503.

10) 동계서.

11) 상계서, p. 504.

12) 상계서, p. 506.

13) 동계서.

여덟 바다가 있는데, 앞의 일곱 바다를 內海라고 이른다. 14)

이 八海에는 四大洲가 있는데, 남쪽의 瞻部洲(Jambu-dv pa), 동쪽의 勝身洲(Purvavideha-dv pa, 계송에서 비제하주), 서쪽의 牛貨洲(Avaragodan ya-dv pa, 계송에서 구타니주), 북쪽의 俱盧洲(Uttarakuru-dv pa)가 그것이다. 15) 또 이 사대주는 각기 사람이 사는 두 中洲씩을 거느려 팔중주가 된다.

이 남섬부주 중앙(즉 중인도)으로부터 점차 북쪽으로 향하여 가면 세 곳에 각기 세 겹의 黑山이 있고, 흑산 북쪽에는 大雪山(Mahahimalaya-giri)이 있으며, 대설산 북쪽에는 香醉山(Gandhamadana-giri)이 있다. 바로 이 대설산 북쪽, 향취산 남쪽에 無熱惱(Anavatapta, 혹은 Anotatta)라고 이름하는 큰 못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곳으로부터 네 개의 큰 강물이 흘러나[온다.] 16)

위는 남섬부주 북쪽의 산들과 강물의 남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어서 8지옥에 대해 기술한다. 남섬부주 밑으로 2만 유선나를 지나게 되면 阿鼻喑(Av ci, 즉 無間)라는 大捺落迦가 있고, 그밖에도 “첫째는 極熱이며, 둘째는 炎熱이며, 셋째는 大叫이며, 넷째는 號叫이며, 다섯째는 衆合이며, 여섯째는 黑繩이며, 일곱째는 等活” 17) 등의 일곱 날라가가 무간지옥 위에 겹겹이 쌓여있다. 또 이 팔대지옥 외에도 8熱지옥과 8寒지옥 등 열여섯 가지 지옥이 더 있다.

앞에서 말한 四大洲의 八中洲는 人間途의 세계이고, 그 위는 天上途의 세계이다. 육계의 천상도는 六欲天을 말한다.

여기서 6욕천이란 첫 번째가 四大王衆天이며, 두 번째가 三十三天이며, 세 번째가 夜摩天(Ya madeva)이며, 네 번째가 都史多天(Tu itadeva)이며, 다섯 번째가 樂變化天이며, 여섯 번째가 他化自在天이다. 18)

먼저 ‘사대왕중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擘手라고 이름하는 藥叉 신이 첫 번째 층급에 머물고 있으며, 지만이라 이름

14) 상계서, pp. 508~509.

15) 상계서, pp. 511~512.

16) 상계서, p. 513.

17) 상계서, p. 515.

18) 상계서, p. 364.

하는 약차신은 두 번째 층급에 머물고 있으며, 恒橋라고 이름하는 약차신은 세 번째 층급에 머물고 있는데, 이들 세 가지는 모두 사대천왕에 소속된 天衆들이다. 그리고 네 번째 층급은 사대천왕과 온갖 권속들이 함께 머무는 곳으로, 그래서 경에서는 이 같은 사실에 의거하여 '사대왕중천'이라 설하게 된 것이다.¹⁹⁾

이 사대왕중천은 增上·廣目·持國·毘沙門의 4천왕이 머무는 하늘로, 한국의 어느 사찰이나 일주문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그 사천왕이 주재하는 세계이다.

두 번째의 삼십삼천은 帝釋天으로, “大帝釋(Akra devanam-indra, 因陀羅神을 말함)이 도읍한 큰 성”²⁰⁾이며 忉利天(Trayastrimsa)이라고도 하는데, 수미산 정상 네면의 8部の 천중과 중앙의 天帝釋을 합해 33天이 된다. 이 제석에 대한 신앙은 한국의 민간신앙과도 잘 결합하여 무속신앙의 根幹이 되었고, 사찰에 배치한 삼신각 처럼 불교와 민간신앙의 행복한 동행의 전범을 이루었다.

육욕천의 나머지 세계 및 17天의 색계²¹⁾와 4天의 무색계²²⁾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지만 한국문화에 수용된 부분이 미약하므로 여기서 경전 소개를 마친다.

지금까지 설명한 풍류에서 삼십삼천²³⁾에 이르는 공간을 小天라 하는데²⁴⁾, 이 소천이 천 개 모여 中天이 되고, 중천이 천 개 모여 大天세계를 이룬다.²⁵⁾ 흔히들 삼천대천세계라 하는데, 삼천의 대천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논리대로 엄밀하게 말하면 우주에는 1,000의 3계급에 해당하는 10억에 달하는 태양계와 같은 세계가 존재한다.²⁶⁾

19) 상계서, p. 527.

20) 상계서, p. 529.

21) 상계서, p. 363. 육계·색계의 유정은 소의신에 의지하여 의식이나 목숨 등을 상속한다. 이러한 육계 위의 17처를/ 색계라 이름하니, 거기에는 세 정려 각각에 세 곳이 있고/ 제4 정려에는 여덟 곳이 있다. 此上十七處 名色界於中 三靜慮各三 第四靜慮八

22) 상계서, p. 364. 색계 16천설이 婆沙의 정설(상계서, p. 365)이며 18천설도 있다. 무색계에는 方處가 없지만/ 생에 따라 네 종류가 있는데 중동분과 아울러 명근에 의해/ 마음 등을 상속하게 한다. 無色界無處 由生有四種 依同分及命 令心等相續.

23) 육계의 제2천인 도리천을 말하기도 한다.

24) 『아비달마구사론』, p. 538.

4大洲와 해와 달과/ 소미로산과 육계의 천과 梵世가 각기 1천 개인 것을/ 1소천세계라고 이름한다. 四大洲日月 蘇迷盧欲天 梵世各一千 名一小千界.

25) 상계서, pp. 538~539.

이러한 소천세계의 천 배를/ 설하여 중천세계라고 이름하며 이것의 천 배를 대천 세계라고 하니/ 이 모두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허물어진다. 此小千千倍 說名一中千 此千倍大千 皆同一成壞.

Ⅲ. 부처 변신

불교 수행자의 꿈은 욕망의 덩어리인 육신을 버리고 금빛 찬란한 부처가 되는 것이라 추정된다. 그리하여 석가모니불은 그 가르침을 사성제 팔정도로 요약했다. 成道의 정밀함은 단연코 『棼盼夫得 怛怛朴朴』 설화가 우선하지만 용맹정진의 표현에 있어서는 郁面婢와 비견할 상대가 없으므로 『郁面婢念佛西昇』을 앞세웠다.

1. 郁面婢念佛西昇

육면비 설화는 일연의 성실한 기록 태도와 비약적 신분상승의 측면에서, 용맹정진의 표현에서 다른 불교설화에 비교해 수월성을 지닌다. 설화의 전체적 구성과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鄉傳』

1) 경덕왕 때 강주(康州今晉州, 一作<剛州>, 則今順安)의 남자 신자 수십 명이 서방정토를 목표로 미타사를 세우고 萬日을 기약하여 契를 만들었다.

2) 아간 貴珍의 계집종 육면은 주인을 모시고 절에 가 마당에 서서 중을 따라 염불했다.

3) 주인은 그녀가 자신의 직분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을 못 마땅히 여겨 곡식 두 섬을 하룻밤 동안에 다 쪼개 했다.

4) 계집종은 초저녁에 다 쪼개 놓고 절에 가서 염불했다.

5) 육면은 뜰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 두 손바닥을 뚫어 노끈으로 꿰어 말뚝 위에 매고는 합장하면서 좌우로 흔들며 자신을 스스로 격려했다.

6) 그 때 하늘에서 '육면랑은 堂에 들어가 염불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7) 절의 중들이 이 소리를 듣고 계집종을 권해서 당에 들어가 전과 같이 정진하게 했다.

8) 하늘의 음악소리가 서쪽에서 들려오더니, 육면은 몸이 솟구쳐 집대들보를 뚫

26) 세계를 숫자로 설명하는 인도인들의 숫자 개발과 무한대를 지향하는 그 인식에 그저 경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보이즈1호가 60억km 밖에서 찍은 지구는 모래알 같은 작은 점에 불과했었다. 2005년 5월 NASA 보도에 따르면 이 우주탐사선은 지구에서 약 140억km 떨어진 지점을 지나 시속 7만3600km로 움직이고 있는데 2015년 태양계의 마지막 경계선을 넘어설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태양계 밖에는 어떤 우주가 실재하는지 모를 일이지만 인도인들의 상상력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고 올라가 부처의 몸으로 변하여 연화대에 앉아 큰 빛을 발하였다.

9) 그 당에는 지금도 구멍이 뚫어진 곳이 있다고 한다.(已上 『鄉傳』)

나. 『僧傳』

1) 관음보살의 현신인 棟梁八珍은 무리 천명을 모아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노력, 한패는 정수라 했다.

2) 노력의 무리 중에 일을 맡아보던 이가 계를 얻지 못하고 축생도에 떨어져서 부석사의 소가 되었다.

3) 일찍이 소가 불경을 등에 싣고 가다가 불경의 힘을 입어 아간 귀진의 집 女婢 옥면으로 태어났다.

4) 옥면은 꿈에 감응해서 마침내 불도를 닦을 마음이 생겼다.

5) 귀진은 언제나 미타사에 가서 염불했으므로 계집종인 옥면도 따라갔고 뜰에서 염불했다.

9) 9년 후, 을미년 정월 21일에 옥면은 부처에게 예배하다가 집의 대들보를 뚫고 승천했다. - 소백산에 두 보리사를 짓다.[옥면등천지전]

10) 집 마루에 뚫린 구멍은 열 아름이나 되었는데도, 폭우나 세찬 눈이 아무리 내려도 집안이 젖지 않았다.

다. [후일담 2편]

라. 논평과 讚

일연의 성실한 기록 태도란 최남선의 지적대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그가 확정한 모든 기록물을 한 가지도 폐기처분하는 일 없이 요약으로나마 모두 등재했다는 사실이다. 김부식이 취사선책을 통하여 유학적 세계관에 알맞은 한 가지 사실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폐기해 버리는 것과 비교할 때, 더구나 가치관이란 그 시대의 요청에 의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연의 기록 태도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鄉傳』과 『僧傳』은 결말은 동일하지만 그 내용은 천양지판의 차이를 보인다. 『鄉傳』이란 기록물일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일연이 필드워크를 통해 확보한 구전자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 『鄉傳』에는 구전문학이 갖는 구수한 맛깔과 막힘이 없는 설화의 원숙미가 살아 있다. 이에 비해 『僧傳』의 기록은 일반 승전이 갖는 정형화된 틀에다 옥도윤희라는 형식을 가미하여 승전의 보편성을 추구한 흔적이 역력하다.

다음으로 비약적 신분상승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비의 신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는 부처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여비 시절에는 함께 절에 가는 것도 부끄러워 주인 귀진은 『鄉傳』 3)에서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부처로 변신하는 대목은 그 사실 자체도 장관이지만 그에 대한 기술도 다음과 같이 정밀하고 탁월하다.

하늘의 음악소리가 서쪽에서 들려오더니, 육면은 몸이 솟구쳐 집대들보를 뚫고 올라가 서쪽 교외로 가더니 해골을 버리고 부처의 몸으로 변하여 연화대에 앉아 큰 빛을 발하면서 천천히 가버렸는데, 음악소리는 오랫동안 하늘에서 그치지 않았다.²⁷⁾

이 설화의 청자 또는 독자들이 그 광경을 상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장면의 환상은 일생을 두고 부처되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목표의 자극제가 되고 큰 희망과 용기를 부여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鄉傳』 5)에서 보여주는 용맹정진의 표현은 어떤 승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에스타시 상태의 황홀감에서만 가능한 행위이다. 깃털도 아닌 육신을 가지고 두 발을 작두 칼날 위에 오르는 접신의 경지를 제시한다. 그 경지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그녀는 뜰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 두 손바닥을 뚫어 노끈으로 꿰어 말뚝 위에 매고는 합장하면서 좌우로 흔들며 자신을 스스로 격려했다. 그 때 하늘에서 ‘육면량은 堂에 들어가 염불하라.’는 소리가 들렸다.²⁸⁾

“정성이 지극하면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는 우리 속담이 우연이 아님을 실감한다. ‘元曉不羈’ 조에는 실제로 아들 설총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 원효의 소상 애기를 전하고 있다.²⁹⁾

27) 天樂從西來，婢湧透屋樑而出，西行至郊外，捐骸變現眞身。坐蓮臺，放大光明 緩緩而逝，樂聲不撤空中。

28) 庭之左右，豎立長檝，以繩穿貫兩掌，繫於檝上合掌，左右遊之激勵焉。時有天唱於空「<郁面娘>入堂念佛」。

29) ‘유사’, 元曉不羈。

그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 총이 그 遺骸를 부수어 塑像으로 眞容을 만들어 분황사에 모시고, 공경하고 사모하여 終天의 뜻을 표했다. 설총이 그때 곁에서 예배하자 소상이 갑자기 돌아다보았는데, 지금까지도 돌아다본 그대로 있다.

[라] 논평은 사실에 대한 고증이고讚은 다음과 같다.

西隣古寺佛燈明, 春罷歸來夜二更.
自許一聲成一佛, 掌穿繩子直忘形.

서편 이웃 옛 절에는 불등도 밝아라.
방아 쪼고 절에 가면 밤깊어 이경이네.
한마디 엄불마다 부처가 되고지고,
손바닥 끈을 꿰다니 육신을 초월했네.

讚에서는 육면비가 손바닥을 뚫고 노끈을 꿰 용맹정진의 정신으로 마무리하였다.

2.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작품의 분량면에서 『삼국유사』의 수록 작품으로는 상당히 긴 작품에 속한다. 먼저 구성과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白月山兩聖成道記』.

[나] 古老相傳/옛 노인들이 서로 전해서 말한다.

1) 옛날에 唐나라 皇帝의 못에는 매달 보름 전이면 달빛이 밝고, 못 가운데에 산이 하나 있고 獅子처럼 생긴 바위가 꽃 사이로 은은히 비쳐서 못 가운데에 그림자를 나타냈다.

2) 황제는 畫工을 시켜서 그 모양을 그리게 하여 使者를 보내서 온 천하를 돌면서 찾도록 했다.

3) 사자는 海東에서 연못에 비친 산을 찾아냈다.

4) 사자는 신 한 짝을 사자암 꼭대기에 걸어 놓고 돌아갔는데, 신 그림자도 역시 못에 비치므로 황제는 그 산 이름을 白月山이라고 했다

5) 그 후로는 연못의 산 그림자가 사라졌다.

[다] 努盼夫得 怛怛朴朴 成佛記

1) 백월산의 仙川村에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두 사람이 사람는데, 이들은 모두 풍채와 骨格이 범상치 않았고, 속세를 떠난 마음이 있어 서로 좋은 친구였다.

2) 이들은 20세가 되자 法積房에 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僧道村에 옛절로 함께 가서 大佛田·小佛田의 두 마을에 각각 살았는데, 夫得은 懷眞巖에, 朴朴은 瑠璃光寺에 살았다.

3) 이들은 모두 妻子를 데리고 와서 살면서 產業을 경영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정신을 수양하고 편안히 마을을 길러 속세를 떠날 마음을 잠시도 꾀하지 않았다.

4) 이들은 어느 날 밤 白毫의 빛이 서쪽에서 오더니 빛 속에서 금빛 팔이 내려 와서 두 사람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는 꿈을 꾸고 나서 드디어 白月山 無等谷으로 들어갔다.

5) 朴朴師는 북쪽 고개의 獅子巖 관자집 8척 방인 板房에서, 夫得師는 동쪽 고개의 무더기 돌 아래 물이 있는 곳의 磊房에서 수도했다. 夫得은 彌勒佛을 성심껏 구했고, 朴朴은 彌陀佛을 경례하고 念誦했다.

6) 3년이 못되어 해거름에 스무 살 난 얼굴이 매우 아름다운 娘子가 난초의 향기와 사향 냄새를 풍기면서 갑자기 北庵에 와서 자고 가기를 청하면서 글을 지어 바쳤다.

7) 朴朴은 남자의 간청을 거절하고 문을 닫고 들어갔다.

8) 娘子는 南庵으로 가서 또 전과 같이 청하며 夫得에게 偈 하나를 주었다.

9) 夫得師는 衆生을 따르는 것[隨順衆生]도 역시 菩薩行의 하나일 것이라며 그를 맞아 揖하고 암자 안에 있게 했다.

10) 밤이 되자 부득은 마음을 맑게 하고 지조를 닦아 염불했다.

11) 밤이 새려 할 때 남자는 부득을 불러 產故가 있으니 짚 자리를 준비를 청하여 이에 응했다.

12) 남자는 이미 해산을 끝내고 목욕하기를 청하여 목욕통을 준비해서 남자를 통 안에 앉히고 물을 데워 목욕을 시키니 이미 통 속 물에서 향기가 강하게 풍기면서 金液으로 변했다.

13) 남자가 부득에게 이 물에 목욕하기를 청하여 부득이 마지못하여 그 말에 좃았더니 갑자기 정신이 상쾌해지는 것을 깨닫자 살결이 금빛으로 변했다.

14) 남자는 부득에게 蓮臺에 앉기를 권하고는, “나는 觀音菩薩인데 여기 와서 대사를 도와 大菩提를 이루도록 한 것이오.”라는 말을 마치더니 이내 보이지 않았다.

15) 朴朴은 부득이 戒를 더럽혔을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가 보니, 부득은 蓮花臺에 앉아 彌勒尊像이 되어 光明을 내뿜었고 그 몸은 금빛으로 변해 있었다.

16) 박박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옛날의 交分을 잊지 말고 함께 부처되기를 간청했다.

17) “통 속에 금액이 남았으니 목욕함이 좋겠습니다.” 부득의 말을 듣고 박박은 목욕을 하여 부득과 같이 無量壽를 이루니 두 부처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18) 두 부처는 우러러보고 감탄하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佛法의 要旨를 설명하고 나서, 온몸으로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라] 후기

[마] 논평

[바] 찬3편 - 北庵, 南庵, 聖娘.

[가]의 『白月山兩聖成道記』에서는 “산봉우리는 기이하고 빼어났는데 그 산줄기가 수백 리에 뻗어 있어 참으로 큰 鎮山”임을 밝히고, [나]의 『古老相傳』을 통하여 백월산에 신성성과 영험함을 입증하였다. 설화의 핵심은 [다]의 두 성인의 성불기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努勝夫得과 怛怛朴朴의 이름에 주목한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설화 속의 인물들은 대체로 諡號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그의 뛰어난 행위와 역할에 따라 이름이 주어진다. 경덕왕에게 하늘의 뜻을 중재하면 表訓大德이 되고 국태민안을 위해 「안민가」를 지어주면 ‘忠談師’가 되고 ‘二日竝現’을 해결하면 融天師가 된다.

‘유사’ 문면에는, “두 선비의 이름은 方言이니 두 집에는 각각 두 선비의 마음과 행동이 騰騰하고 苦節하다는 두 가지 뜻에서 이렇게 이름지은 것이다.”³⁰⁾라고 주석하였다. 필자의 소견으로 이를 세분화하여 마음과 행동이 騰騰한 선비는 노힐부득이고, 苦節한 이는 달달박박임을 밝힌다. 자질구레한 일에 얽매임이 없이 초탈한 마음으로 수행에 임하는 부득과 흑시라도 계율을 어길까 안달복달하는 율법주의자 박박으로 해석하여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단언한다.³¹⁾

오온의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계율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저문

30) 『三國遺事』 3卷 4塔像 『南白月二聖/努勝夫得』, “怛怛朴朴鄉傳云雉山村, 誤矣, 二士之名方言, 二家各以二士心行騰騰苦節二義名之爾.”

31) 미당 서정주 선생은 『삼국유사』의 설화를 소재한 시를 묶어 『신라초』(1960) 시집을 출간했으므로 유사 설화의 해석에 정통한 분인데, 그 분은 ‘부득’을 우리말로 ‘불들이’로 해석하셨다. 『수로부인조』에서 ‘姿容絶代’라는 핵심어를 놓치지 않는 분이니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힐’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놓다’는 말과 관련하여 관대한 마음을 가진, 관음보살의 자비심을 지향하는 불심으로 충만한 분으로 본다. 그리고 달달박박은 자기 마음을 ‘달달’ 볶고, 상처가 나도록 자신을 ‘박박’ 굵는 율법주의자임을 첨언한다.

날에 자태와 용모가 매우 미묘하고, 난향 사향의 향기가 풍겨오는 나이 이십의 젊은 처녀가 찾아왔지만 박박은 일연이 찬한 것처럼 “내 뜻을 더럽히지 말라.”고 단호히 거절한다, 一然이 주석한 “나는 온갖 생각이 재처럼 싸늘하니 젊은 육신으로 시험치 말라.”고 한 『記』를 참고하면 부득의 수도의 단계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윗 단계의 수행은 계율을 초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득의 수행이 이를 입증한다. [나 9]의 “衆生을 따르는 것[隨順衆生]도 역시 菩薩行의 하나”라는 인식이 이를 뒷받침한다. 『보현보살행원품』에 따르면 보살의 행원은 아래의 열 가지이다.

- 一者禮敬諸佛. 二者稱讚如來. 三者廣修供養. 四者懺悔業障.
- 五者隨喜功德. 六者請轉法輪. 七者請佛住世. 八者常隨佛學.
- 九者恒順衆生. 十者普皆迴向

이 가운데 박박의 행원은 九者恒順衆生이다. 그러니 南庵찬에서 일연이 다음과 같이 정리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谷暗何歸已暝煙, 南窓有簾且流連.
夜闌百八深深轉, 只恐成喧惱客眠.

골짜기에 해 저문데 어디로 가리,
남창(南窓)에 자리 있으니 머물다 가오.
밤 깊어 백팔 염주(念珠) 세고 있으니,
이 소리 시끄러워 길손의 잠 깰까 두려워라.

그리고, 聖娘에 대해서는 일연이 논평에서 밝힌 대로이다.

娘은 참으로 부녀의 몸으로서 攝化했다 할 만하다. 『華嚴經』에 摩耶夫人 善知識이 十一地에 살면서 부처를 낳아 解脫門을 如幻한 것과 같다. 이제 남자의 순산한 뜻이 여기에 있으며, 그가 준 글은 슬프고도 간곡하고 사랑스러워서 天仙의 志趣가 있다.³²⁾

여기서 十一地란 十地와 等覺을 말하는데,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인 52位중 41위

32) 議曰: 娘可謂應以婦女身攝化者也, 華嚴經摩耶夫人善知識, 寄十一地生佛, 如幻解脫門, 今娘之桶產微意在此. 觀其投詞, 哀婉可愛, 宛轉有天仙之趣.

로부터 50위까지를 십지라 한다. 이 10위는 佛智를 생성하고 능히 住持하여 흔들리지 않고 온갖 중생을 깊어지고 교화 이익되게 함이 땅이 만물을 낳고 키움과 같아서 地라고 한다. 등각은 보살이 수행하는 순서로서 그 지혜가 부처님과 거의 같으므로 등각이라 한다. 여기서는 보살을 마야부인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如幻’의 ‘幻’은 여러 방법으로 코끼리, 말, 인물 등을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廣德·嚴莊

이 조항은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문무왕 때에 승려 광덕과 엄장 두 사람은 도반으로 먼저 극락왕생하는 이가 서로 알리자고 약속했다.

2) 광덕은 분황 西里에 숨어서 신 삼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처자와 함께 살았고, 엄장은 남악에 암자를 짓고 크게 농사를 지었다.

3) 어느 날 엄장은 극락왕생한다는 광덕의 소리가 듣고 그 광경을 목도한다.

4) 이튿날 엄장은 광덕이 사는 곳을 찾아가 그의 아내와 함께 광덕의 유해를 거두어 장례지냈다.

5) 엄장은 광덕의 부인에게 함께 지내자고 제안하자 광덕의 아내가 승낙하므로 그 집에 머물렀다.

6) 밤에 잘 때 관계하려 하니, 광덕의 아내는 남편과 십여 년을 살았지만 일찍이 하룻밤도 함께 잠자리하지 않았으며 밤마다 아미타불만 염송했다고 말했다.

7) 엄장은 곧장 원효법사의 처소로 가서 원효의 삼관법을 익혀 한 뜻으로 도를 닦았으므로 또한 서방정토로 가게 되었다. -삼관법은 원효법사의 본전과 해동고승전 속에 있다.

8) [후기]그 부인은 바로 분황사의 계집종이니 대개 관음보살 19응신 가운데 하나였다. 광덕에게는 일찍이 노래가 있었다. -『원왕생가』

여기서 광덕과 엄장은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에 대응된다. 이 조항에서 광덕은 아내와 함께 살았고, 엄장은 독신으로 수도한다. 광덕의 성불 후에 율법주의자 엄장은 금욕생활을 청산하려다 광덕의 아내에게 망신만 당하고 드디어 원효의 삼관법을 닦아 극락왕생한다는 구성이다.

여기서도 광덕과 엄장은 그 이름에서 이미 그들의 성격과 수도방법, 그 결말까지가 예견된다. 엄장은 금욕생활만으로는 득도하지 못하고 원효의 삼관법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 신라의 민중불교를 연 원효는 ‘유사’의 『원효불기』조 제목만 보더라도 圓通無滯한 승려임을 감지할 수 있다. 여성인 광덕의 아내는 수도의 조력자로서 두 수도승을 차례로 극락왕생케 한다. 원효 이후 민중불교시대의 매력적인 설화라 말할 수 있겠다. 게다가 달빛을 타고 앉은 광덕이 부르던 『원앙생가』가 있어 이 설화의 매력은 배가된다.

성불의 조력자인 광덕의 아내에 대하여 “바로 분황사의 계집종이니 대개 관음보살 19응신 가운데 하나”라고 해설한 점도 흥미를 더한다. 설화에서의 관음보살은 불상이나 탱화 속의 관음보살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여비 등으로 등장한다.

『洛山二大聖 觀音·正趣, 調信』조에 의하면 의상은 7일 재계 후 관음보살이 있다는 굴 속에 들어가 참례한 후 수정 한 껌미를 받고, 동해의 용이 또한 如意寶珠한 알을 바치므로 의상이 받들고 나와서 다시 7일 동안 齋戒하고 나서 비로소 觀音의 진신을 친견한다. 그러나 원효조차도 郊外의 논 가운데에서 벼를 베고 있던 흰 옷을 입은 여인과 다리 밑에서 月水帛을 빨고 있던 한 여인이 관음보살의 진신임을 눈치채지 못한다.

원효는 그녀가 떠주는 더러운 물을 앞질러 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다. 이때 들 가운데 있는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제호스님은 쉬시지요.”라고 했는데 그 소나무 밑에는 신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원효는 그때도 진신임을 알아채지 못했으나 절에 이르러 觀音菩薩像의 자리 밑에 또 전에 보던 신 한 짝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서야 전에 만난 聖女가 관음의 眞身임을 알았다고 적었다. 그러니 수행이 하늘을 찌르지 않고서야 허름한 일반인의 모습으로 출현하는 진신을 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IV. 경천동지의 자질과 재능

一然是「月明師 兜率歌」조에서 향가에 대해, “신라 사람들은 향가를 숭상한 자가 많았으니, 이것은 대개 시경의 ‘頌’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따금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³³⁾라고 언급하였다. 향가의 성

33) 羅人尙鄉歌者尙矣。蓋詩頌之類歟？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

격과 주술성을 아울러 지적인 대목이다. 균여의 「보현십원가」는 물론이거니와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도 음풍농월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씌어진 작품은 없다. 향가의 기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실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개물로 향가는 불리워졌다. 그리하여 일연은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다는 표현으로 향가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그 주술성의 바탕에는 경천동지하는 話者의 천재적 자질과 재능의 발현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설화 몇 편을 정리해 본다.

1. 蛇福不言

이 설화의 내용을 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복설화

1) 경주 만선북리에 한 과부가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나이 12세가 되도록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다.

2)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죽자 고선사의 원효를 찾아가, 그대와 내가 옛날에 경을 신고 다니던 암소가 지금 죽었으니 나와 함께 장사지내자고 말했다.

3) 원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사복은 원효에게 포살계를 주게 하니, 원효는 “莫生兮其死也苦! 莫死兮其生也苦!”라 했다.

4) 사복이 너무 길어 번거롭다고 하자 원효는 “死生苦兮!”라고 고쳐 말했다.

5) 두 사람은 상여를 메고 활리산 동쪽 기슭으로 가서 원효는 “지혜 있는 범을 지혜의 숲 속에 장사지냄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6) 사복은 지금 석가모니불 같은 이가 연화장세계에 들려고 한다는 계송을 지어 읊었다.

7) 띠풀의 줄기를 뽑으니 그 밑에 명랑하고 청허한 세계가 있었고, 칠보로 장식된 난간에 누각이 장엄하였다.

8) 사복은 시체를 업고 그 속으로 들어가자 문득 땅이 합쳐졌다.

9) 원효는 혼자서 돌아왔다.

[나] [후기]

[다] [讚]

표현은 간결하지만 누락된 것은 없다. 사복의 성격은 그의 계송과 一然의 찬에 적실하게 표현되었다. 계송과 찬은 다음과 같다.

往昔釋迦牟尼佛，娑羅樹間入涅槃，
于今亦有如彼者，欲入蓮花藏界寬。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하셨네.
지금도 그와 같은 이 있어
넓은 연화장세계에 들려고 하네.

淵默龍眠豈等閑，臨行一曲沒多般。
苦兮生死元非苦，華藏浮休世界寬。

연못에 잠든 용이라고 어찌 등한하랴.
떠나면서 읊은 한 곡조에 모든 것 다했네.
괴롭다는 삶과 죽음도 본시 괴로운 건 아닙니다.
넓은 연화장세계에 떠도는 분이여.

계송에 의하면 사복의 어머니는 수도의 단계가 석가모니불 같으신 분이다.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은 동정녀인 그 어머니의 유전인자를 받았다면 열두 살까지 말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했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석가족에 속한다. 그것은 그가 자기 어머니의 시신을 씹어지고 극락세계로 직진하는 데서 입증된다. 부처 변신 과정조차 초극한 그는 이승의 몸이 바로 극락에 들어가는 데 하등의 장애가 없는, 금빛 없는 부처였던 것이다. 이 설화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기술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사복을 대기만성형 인간으로 설정하였다. 열두 살까지 말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이라면 우리는 인간되기 그른 아이로 치부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가 부처 변신 단계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상의 세계에 드는 부처이고, 도력 높은 원효의 도반이면서 원효의 스승급 인물이라니 경이롭기만 하다. 이는 결국 ‘개유불성’의 평등사상의 구체적 현시이다. 해안을 가진 지혜로운 자만이 상대의 수월성을 볼 뿐이다.

둘째로, 지상과 천상세계를 ‘茅莖’을 매개로 연결한 설정인데 특이한 발상에 속한다. 이에 대해 황폐강은 뱀을 男根 상징으로, ‘茅莖’을 우주의 중심나무인 신단수의 변형으로 설명하고,³⁴⁾ ‘福負尸共入 其地奄然而合’에 대해서도 태아기의 모태적 안락은 인류의 향수로서 무의식의 세계에 간직되어 있는데 “그들의 귀의처는 모태적인 大地”³⁵⁾라고 논한 바 있다.

34) 황폐강, 『사복설화시론』, 『한국서사문학연구』, 단국대출판부, 1972, pp. 178~179.

셋째로, “괴롭다는 삶과 죽음도 본시 괴로운 건 아니”라는 一然의 찬에서 주목되는 점은 生과 死를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파악한 점이다. 발생단계를 생략한 생명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출발점이 生이고 종착지가 死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욕칠정과 괴로움을 말하는 건 생명현상에 대한 감각현상일 뿐 생명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一然은 생사조차도 본디 괴로운 건 아니라고 단언했다.

2. 水路夫人

필자는 글쓰기 구성의 전형으로 이 설화를 추천한다. 이 설화는 다음과 같이 3단구성으로 짜여져 있다.

[가] 제1단

- 1) 성덕왕 때에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을 할 때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곁의 천 길 바위의 봉우리 위에는 철쭉꽃이 만발하였다.
- 2) 순정공의 부인 수로가 그것을 보고 저 꽃을 꺾어다 줄 사람을 찾았으나 모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 3) 그 때 암소를 몰고 그 곳을 지나던 한 노옹이 부인의 말을 듣고 꽃을 꺾어가지고 와 「헌화가」를 지어 바쳤다.
- 4) 그 노인은 어디 사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 제2단

- 5) 다시 사행 이틀차에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해룡이 홀연히 부인을 납치하여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 6) 한 노인이 나타나서 界内の 사람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7) 공이 그 말을 좇아 행하였더니 용이 부인을 받들고 나와 바치었다.
- 8) 부인은 별천지인 바다 속의 일에 대해서 말했는데 수로부인의 옷에서는 기이한 향기가 풍겼다.

[다] 제3단

- 9) 수로부인은 그 용모가 세상에서 견줄 이가 없었으므로 번번이 깊은 산이나

35) 상계서, p. 182.

큰 못을 지날 때에는 자주 神物들에게 납치당했다.

[라] 「海歌」 및 「노인헌화가」 소개

이 설화의 주제는 본문의 핵심어인 ‘姿容絶代’이다. [가]의 제1단에서는 깊은 산속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천 길 낭떠러지 위에 핀 철쭉꽃을 꺾어 바치며 「헌화가」를 불렀다는 내용이다. 이 노인은 [나]의 제2단에 등장하는 노인처럼 신통력을 지닌 장노이다. 이 노인을 움직인 힘은 수로부인의 미모이다. 그 노인은 지금까지 그 나이 들도록 그런 미인을 본 적이 없었다. 봄의 꽃으로 진달래가 가장 먼저 피지만 이 철쭉과 구분하여 적은 것 같지는 않다. 진달래로 봐도 좋다는 얘기다.

사계가 뚜렷한 지역에서 황량한 겨울이 지나고 잿빛 천지에 신록이 피어나는 것도 신기한데 분홍빛 색채로 산빛을 채색하니 경이롭기까지 하다. 꽃이란 어휘와 美라는 말은 동의어에 가깝다. 이 노인의 눈에 비친 수로부인은 저 봄날의 꽃보다 아름다웠던 것이다. 소가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에게 내재하는 불심 찾기를 잃어버린 소 찾는 데 비유한 ‘尋牛’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필자는 향가가 절실한 현실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려졌다고 했는데, 이 작품만은 예외적으로 미인 찬가이다. 노인은 그의 가슴 속에 용솨음치게 한 생명력의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 미인이 소망하는 꽃과 함께 「헌화가」를 바쳤던 것이다.

[나]의 제2단에서는 작품의 공간을 용궁으로까지 확대하였다. ‘衆口鑠金’이라는 노인의 지혜를 실천하여 용왕이 앗아간 수로부인을 되찾아오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적 줄거리이다.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상세계인 용궁에도 그런 미인은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빼어난 미인이란 얘기다.

[다]의 제3단에서는 “수로부인이 ‘姿容絶代’여서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자주 神物들에게 납치당했다.”³⁶⁾라고 요약문을 쓰듯이 정리하였다. 제3단의 내용은 이것이 전부이다. 이미 깊은 산속이나 바다에서의 기적적인 일을 나누어 기록했으므로 또 유사한 사건을 중언부언 덧붙이는 것은 오히려 글의 구성을 해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대표적 사건을 통하여 선명하게 기억된 미인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필자가 이 설화를 글쓰기 구성의 한 전형이라 적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36) 水路姿容絶代, 每經過深山大澤, 屢被神物掠攬.

3. 良志使錫

이 설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신라 선덕왕 때에 승려 양지는 그 조상이나 고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 2) 錫杖의 끝에 포대 하나를 걸어두면 그 지팡이는 하늘로 날아갔다.
- 3) 시주의 집에 가서 흔들면서 소리를 내면 그 집에서는 이를 알고서 재에 쓸 비용을 자루에 넣었다.
- 4) 포대가 다 차면 이 석장은 다시 날아서 절로 돌아온다.
- 5) 그리하여 그가 거주한 절을 석장사라고 했다.
- 6) 양지는 신기하고 특이하여 여러 가지 기예에도 두루 통달하여 신묘함이 비길 데가 없었다.
- 7) 그는 필찰과 불상조성에도 능하였다.
- 8) 그가 영묘사의 장육상을 만들 때에는 온 성안의 남녀들이 다투어 진흙을 나르며 『風謠』를 불렀다.

이 설화의 주제는 양지의 신묘한 기예를 표현함에 있다. 7)에는 영묘사 장육삼존상과 천왕상, 또는 전탑의 기와와 천왕사 탑 밑의 팔부신장과 범림사의 주불 삼존과 좌우 금강신 등을 조상하였으며, 영묘사와 범림사의 현판을 썼고, 벽돌로 탑을 하나 만들었으며, 아울러 삼천불을 만들어 봉안한 사실도 등재하고 있다.

이 설화의 특징은 날아다니는 지팡이의 설정이다. 이 석장의 역할은 2)-4)에 기재하였다. 양지의 신묘한 기예를 표현하기 위해 신라인들은 양지의 손에 닿으면 석장조차도 하늘을 날아 시주집과 절을 오가는 자동지팡이를 고안했다. 솜씨의 우수성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부사를 동원하여 용언을 한정하게 되겠지만 그 작업 만으로는 양지의 신묘한 기예를 표현하기엔 부족하여 끝내 기상천외한 자동석장을 고안하고 이를 개발했던 것이다.

4. 月明師 兜率歌

이 설화의 구성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도술가

- 1) 경덕왕 19년 경자(760) 4월 초 하루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서 열흘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자 일관이 散花功德을 지으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 2) 조원전에 정결히 단을 만들고 월명사를 불러서 기도하는 글을 짓게 했다.
- 3) 월명은 聲梵에는 익숙치 못하다고 사양했으나 왕은 향가라도 좋다고 하여 월명은 도술가를 지어 바쳤다. 『도술가』 및 『도술가』 解詩
- 4) 조금 후에 이내 해의 변괴가 사라졌다.

[나] 월명의 덕과 정성

- 5) 왕은 이것을 가상하게 여겨 品茶 한 봉과 수정염주 108개를 하사하니 한 동자가 나타나 선물을 받들고 대궐 서쪽의 작은 문으로 나갔다.
- 6) 왕은 심히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뒤를 쫓게 했더니 동자는 내원의 탑 속으로 들어가 숨었는데, 차와 염주는 남쪽의 벽화 미륵상 옆에 있었다.
- 7) 월명의 지극한 덕과 정성이 미륵보살을 감동시켰다.

[다] 『제망매가』

[라] [월명은 피리연주의 달인]

- 1) 월명은 늘 사천왕사에서 지냈는데 피리를 잘 불었다.
- 2) 어느 날 피리를 불면서 문 앞의 큰 길을 지나는데 운행하던 달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月輪을 멈추었다.
- 3) 이로 인해 그 거리를 월명리라 했고, 월명사는 이 일로 저명해졌다.

[마] [讚]

[가]의 『도술가』 조항에서는 ‘二日竝現’의 자연 재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향가를 불러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월명의 신통력을 입증한 것인데, 다라니가 아닌 향가를 사용한 점을 대서특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방식은 진평왕대 ‘融天寺 慧星歌’ 조항에도 보인다. 용천사는 이 노래로 ‘慧星’을 물리쳤다. 혜성이 사라지자 왜군들도 물러나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혜성은 왜군 침입의 전조인 흉조로 이해된다.

[나]는 문면에 밝혔듯이 월명의 지극한 덕과 지극한 정성이 미륵보살을 감동시켜 동자를 내보내 그 증거로 삼게 한 사실을 기술했다.

[다]의 『제망매가』를 넣은 것은 재의 발원문이라면 으레 다라니나 한문으로 된 글을 염송했을 테지만 그것으로는 자기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월명은 10구

체 향가로 제문을 지어 발원문으로 사용했다. 이 『제망매가』를 향가 최고의 서정 시로 꼽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말 노래로 다라니를 대신한 월명의 과격적 선택에 필자는 더 큰 의의를 둔다. 『도솔가』를 통해 하늘을 감동시킨 효험이 있었으므로 월명은 향가의 신통력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이 조항을 선정한 것은 사실 [라]의 2) 때문이었다. 그가 피리의 달인이라는 표현을 해야겠는데 어떤 부사를 선택해도 직성이 풀리지 않은 화자는 드디어 자연의 반응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개발한 표현이 달이 월명의 피리 소리를 듣느라 운행을 정지했다는 것이다. 탁월한 재주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한국문학에서 이 설화가 처음은 아니다.

한국문학의 태두로 일컬어지는 최치원은 이미 ‘향악 잡영’ 5수 중 『金丸』에서 다음의 표현을 개발하였다.

廻身掉臂弄金丸 月轉星浮滿眼看
縱有宜僚那勝此 定知鯨海息波瀾

몸 돌리고 팔 휘둘러 방울 굴리니
달이 구르고 별이 뜬 듯 눈이 어지러워
비록 의료가 있다 한들 어찌 이보다 나으랴
정히 동해의 물결 쉬게 함을 알겠네.

동해의 바다물이 현란하게 방울 굴리는 걸 구경하느라 물결치는 것을 잊었다는 절묘한 표현이다. 一然도 찬의 제2구에서 월명이 피리연주의 달임임을 내세워 “피리 소리 밝은 달 움직여 향아를 머물게 했네.”³⁷⁾라고 특기했다.

V. 結 語

불교를 통해서 개인의 구원과 국가의 영속성을 추구했던 신라인들은 불교에서

37) 風送飛錢資逝妹 笛搖明月住姮娥
莫言兜率連天遠 萬德花迎一曲歌.
바람은 지전을 날려 누이의 저승 노자 삼고
피리 소리 밝은 달 움직여 향아를 머물게 했네.
도솔천이 멀다고 말하지 마라.
만덕화 한 곡조로 즐겨 맛았네.

제시하는 무궁무진한 공간개념과 판타지를 믿고 실천했다. 그들의 신앙과 노래는 문자 그대로 천지를 감동시켰다. 이상에서 최상의 감동에 대한 『삼국유사』 소재의 설화문학의 표현법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불교의 윤회설과 우주론을 약술하고, 부처 변신과 경천동지의 자질과 재능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설화를 분석하였다.

붓다는 인생의 ‘苦’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無我’이론을 전개했고, 의식을 만드는 色[육체]에 대한 사색과 우주에 대한 탐색을 거듭했다. 오온, 오취, 12연기, 삼계오도, 사성제, 팔정도 등이 주요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우주론에 있어 三千大千世界, 엄밀하게 말하면 이 태양계와 같은 우주를 하나의 小天世界를 볼 때 10억의 태양계가 있다니, 色에 바탕한 ‘我’의 존재란 너무나 극미하여 ‘無我’라 해도 큰 잘못은 아닐 것 같다. ‘無我’의 실상을 공간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 무한대의 우주론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부처 변신의 측면에서는 「郁面婢念佛西昇」,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廣德·嚴莊」, 경천동지의 자질과 재능에서는 「蛇福不言」, 「水路夫人」, 「良志使錫」, 「月明師 兜率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수도승들의 꿈인 부처 변신이 신라시대에는 밥먹듯이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염송 몇 번하다고 성불하는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각고의 수도 끝에 이승의 육신이 바로 금빛 찬란한 부처로 변신하여 서방 극락정토로 구름처럼 날아가는 것이다. 「郁面婢念佛西昇」에서 육면비는 빨리 방아찝기를 끝내고 절에 가 염불하기 위해 두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 노끈을 꿰고, 이 끈을 방아공이 쪽에다 매달고 당기며 방아찝기를 재촉했다. 용맹정진의 놀라운 표현 아닐 수 없다.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에서 노힐부득은 몸에 밴 금욕생활로 저문 날에 하룻밤 잠자리를 요청하는, 사향과 난향이 풍기는 스무살 난 남자를 받아들이고, 밤새워 염송에 매진할 뿐 아무일도 없었다. 오히려 남자의 요청으로 목욕물을 덥혀 씻겨주기까지 한다. 그 결과 「隨順衆生」하는 보살행을 실천한 노힐부득은 성불했고, 도반의 덕분에 남은 금물에 목욕한 율범주의자 달달박박도 극락왕생한다.

「廣德·嚴莊」의 광덕과 엄장은 위의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에 대응된다. 이름의 설정부터 성불의 조력자인 관음보살의 화신까지 일치한다. 경천동지의 자질과 재능에서 「蛇福不言」은 대기만성형인 사복의 설정부터 띠풀 줄기에 연결된 연화장 세계의 설정, 변신과정 없이 곧바로 이상세계로 직행하는 모습 등 경이로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水路夫人」에서는 이 설화의 주제는 본문의 핵심어인 ‘姿容絶代’를 표현하기 위해 노인을 천 길 낭떠러지 절벽을 기어오르게 하기도 하고, 용왕이 납치해간 수로부인을 강릉 주민들이 모두 몽둥이를 들고 나와 해안을 두

드리며 『海歌』를 불러 미인을 되찾아오는 법석을 피우기도 한다. 필자는 글쓰기 구성의 전형으로 이 설화를 추천했는데 마지막 내용단락은 그 후로도 자주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간결하게 마무리했다.

『良志使錫』에서는 이 설화의 주제인 양지의 신묘한 기예를 표현하기 위해 자동으로 날아다니는 지팡이를 설정했다. 리모콘의 작동에 해당하는 행위는 양지가 시주받을 쌀을 담은 자루를 석장 끝에 걸어주는 일 뿐이다. 자루가 차면 그 오토매틱 스틱은 하늘을 날아 저절로 절로 돌아온다. 이 얼마나 기상천외한 발상인가?

『月明師 兜率歌』에서 월명은 한문이나 다라니로 된 『산화공덕가』 대신 우리말로 된 노래인 향가 『兜率歌』를 지어 ‘二日竝現’의 천재지변을 해결한 신통력을 발휘했다. 또 한문이나 다라니로는 자신의 심중을 다 표현할 수 없어 향가로 『제망매가』를 지어 제문으로 사용했다. 필자가 표현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어떠한 부사를 동원해서 그의 피리연주 솜씨를 한정해도 걸맞지 않아 결국은 그의 피리소리를 듣기 위해 달이 운행을 정지했다고 기술한 대목이었다. 향가가 천지자연을 감동시켰다는 말과 딱 들어맞아 아마 一然도 놀랐을 것이다.

[논문투고일 : 8월 14일, 논문심사완료일 : 8월 21일, 논문게재확정일 : 8월 24일]